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가치관 및 가족관계 요인

강 유 진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Family-related Factors Affecting the Second Birth Decision:

Focus on the Value of Children and Family Relationships

Kang, Yoo Jin

Dep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Gunpo,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the decisions regarding second births. Especially, analysis focused on the connections between desire for a second birth and the family factors such as family values and marital relations because they have been rarely known until now. Data was from 1,156 married women that had only one child and had been part of the national data collected by KIHASA in 2003.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value-related factors affect the likelihood of a second birth. The degree of parental responsibility is negatively related with the desire for a second birth. However, the perceived ideal number of children is positively related to it.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quality of family relations influences the decision for the second birth. Particularly, marital satisfaction is likely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tending to mediate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value-related factors on the plan for a second birth.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ffects of social norms on the number of children and timing of childbearing which exist in the family are becoming weaker. Nevertheless, the traditional value of children such as a preference for a son can still be found.

Key words: family-related factors, second birth, values of children, marital satisfaction

I. 문제제기

최근 우리 사회의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출산행동의 급격한 변화가 매우 중요한 사

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60년에 6.0명에 육박하던 합계출산율이 1980년대 들어 2.8명대로 급격히 감소하더니 1985년에 1.7명대로 진입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도 출

산율은 꾸준히 감소하여 2006년에는 출산율이 1.08명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출산율로 보고된다(통계청 2006).

이에 따라 사회적 차원 뿐 아니라 학문적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먼저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2004년에 정부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구의 지속적 감소를 막기 위한 제도와 대책마련을 시작하였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구성하는데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06년 6월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의 장애를 제거하고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둔 '저출산'고령화 사회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2007).

또한 학문적 차원에서도 출산율 감소의 원인과 결과를 탐색하고 이것에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들을 찾아내려는 노력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출산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첫째, 거시적 환경인 사회구조 속에서 출산행동의 사회적 함의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는 연구(김정이 2004; 손승영 2005; 원정원 2004; 이인숙 2005; 이삼식 2006; 정연숙 2006; 조아라 2005), 둘째,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출산력에 관한 통계적 변화 양상을 보고하고 측정방법론을 논의한 연구(김승권 2004; 김정석; 2007; 은기수 2001), 셋째, 여성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자녀수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강경숙 등 2005; 이윤희 2006; 변준한 2003), 넷째, 정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강복화 2003; 김수연 2004; 김정례 2005; 손홍숙 2005; 정상훈 2005; 최현수 2003)들이 주를 이룬다. 이 연구들은 주로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연령, 교육수준 등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출산행동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세우고 이것이 갖는 사회적 함의를 찾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왔다.

이 연구들은 자녀출산행동은 어떤 단일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복합적인 관점에

서 다양한 차원의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다. 특히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 중 가족환경은 출산이 이루어지는 가장 친밀하고 직접적 생활의 장으로써 출산행동에 매우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왔다. 왜냐하면, 출산력의 변화를 통한 인구학적 변환은 본질적으로 부부를 단위로 하는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출산결정의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UN 2003) 가족환경은 출산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가족요인과 자녀출산과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사회 인구학적 측면 및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환경이 개인의 출산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면서 거시적 차원에서 출산력 변화의 배경을 이해하고 이것이 어떻게 개인의 출산력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춘 경향이 다. 반면, 미시적 차원에서 가족과 관련된 요인의 통계적 효과를 대표성 있는 실증자료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족요인과 출산행동을 연결시킨 연구라 할지라도 가족요인 자체를 분석의 중심에 두기보다 결혼연령, 출산간격, 부인취업여부, 가족소득 등 주로 가족구성원의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구의 연구자들은 출산력 연구들이 지나치게 사회경제학적, 인구통계학적 분석에 치중하였다는 점을 비판하면서(Nock 1988), 가족환경의 내적 속성 즉, 미시적 차원에서 가족구성원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나 부부관계의 질이 자녀출산행동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이론적 혹은 구체적인 실증자료를 통해 검증한 바 있다. 결국, 가족이 출산이 일어나는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단위인 만큼 가족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의 요인들을 분석의 중심에 두고, 이 요인들이 과연 출산행동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가족이 외적인 측면 뿐 아니라 내적 측면에서 빠르게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족환경의 다양한 차원

중 가치관과 가족관계와 같은 가족 내적인 속성을 고려하여 자녀출산과 가족요인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결혼을 하면 부부가 당연히 최소한 몇 명의 자녀를 낳고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전통적 가족규범이 약화되고 있다(이인숙 2005; 장진경 2005). 예를 들면, 결혼 이후 첫 출산 간격을 늦추거나(은기수 2001),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 둘째 자녀출산을 꺼리는 등(장해경 등 2004), 출산의 '양'과 '속도'를 조절하는 현상이 이것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구성원들이 전통적으로 존재해 온 규범적 모델에 따라 일률적 패턴에 의해 자녀출산을 결정한다기보다 각 개인과 가족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자녀출산의 여부와 시기를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방향으로 자녀출산의 결정과정이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하겠다(김승권 2004; 은기수 2001). 이처럼 자녀출산이 사회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선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가족단위에서 자녀출산을 위한 결정에 매우 현실적이고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나 인구학적 특성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으로서 갖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 가족원간의 유대감 등 가족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외적·내적 특성들을 분석의 중심에 두고 보다 면밀히 출산 패턴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구성원의 인구학적 특성 이외에도 그 동안 간과되어 왔던 자녀가치관, 가족관계 만족도 등 가족 내적 차원의 요인들이 둘째 자녀출산 계획에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 검증해 볼 것이다. 즉, 가족환경과 자녀출산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가족환경을 사회인구학적 특성 뿐 아니라, 자녀가치관 요인과 가족관계의 속성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이 요인들이 어떠한 상호 관련을 맺으며 자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처럼 가족환경 요인을 다양한 범주로 구분함으로써 가족환경이 자녀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다 풍부한 설명과 해석이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특히 본 연구는 한자녀 기혼여성의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 연구의 초점을 제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우리 사회의 합계 출산율이 2명을 훨씬 밑도는 1.08명에 그치는 상황에서 과연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할 것인가의 여부는 개별 가족단위의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는(박정희·장영애 2003) 부부간 육아협력 등 다양한 가족관계 및 가족환경이 둘째 자녀를 계획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이미 가족 안에 한 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두 번째 자녀의 출산은 첫째 자녀출산 보다 더욱 신중하고 계획적 차원에서 가족이 처한 경제적, 관계적 환경 등 여러 측면들을 고려하여 이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김정석 2007; Bulatao 1981). 따라서 둘째 자녀 출산 계획에 있어서 가족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력이 더욱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자녀출산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살펴내는데 있어서 많은 연구들이 현존 자녀수를 분석의 중심에 두고 있으나, 자녀출산에 대한 열망은 미래 행위를 전망하고 출산력의 경향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지적된다(김정석 2007; Hoffman 1975). 특히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초점을 한정하는 것은 출산을 연기하거나, 무자녀 가족(childless couple)이 포함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 문제들을 배제하여 출산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Torr & Short 2004).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단위의 조사 자료를 통해 조사대상자들의 자녀가치관과 가족관계의 전반적 경향성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뿐 아니라 자녀가치관과 가족관계의 만족도가 추가자녀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때, 자녀가치관과 가족관계만족도의 영향력을 각각 분석하는 모델과 이 두 가지 요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영향력을 분석하는 모델을 순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자녀가치관과 가족관계 만족도 요인의 효과가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출산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사회적 단위인 가족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국 단위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출산력과 가족 내의 다이내믹이 과연 어떠한 관련성을 맺는지를 구체적 실증자료를 통해 검증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 출산율 변화의 배경을 이해하고 향후 출산행동 양상을 예측하기 위한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자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관련 요인

1) 자녀가치관 요인과 자녀출산

서구의 연구들은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 등 이념적 요인들이 사회경제적 요인보다 가족행동과 출산경향성에 더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주장한 바 있다(Hakim 2003; Mason & Jensen 1995). 즉, 개인의 출산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업, 거주비용 등 분석의 단위를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요소에만 한정하지 않고, 좀 더 미시적 수준의 요인인 가족과 자녀 가치관, 태도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에 가족주의가 약화하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만연함에 따라 가계를 계승하고 부모의 노후를 위한 자녀의 필요성이 약화되면서, 자녀수와 자녀 성별에 대한 보편적 기대가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과연 개인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해 볼 시점이다. 여기서는 자녀출산과 관련되어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아들의 필요성, 자녀양육책임감, 이상자녀수 등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아들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태도와 출산행동의 관련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변화로 설명되어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의 조사에 의하면 결혼 이후 반드시 자녀를 갖겠다는 응답이 1991년에 78%를 넘었던 것이 2000년 조사에 의하면 58.1%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54.5%로 점차 응답률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삼식

2006). 선행연구 결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이 강할수록 실제 자녀수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인숙 2005). 그런데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남아선호사상을 감안할 때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아들의 필요성으로 좀 더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녀에 대한 필요성과 자녀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녀출생성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이 보고되기 때문이다(통계청 2007). 즉,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아 백 명당 남아수를 의미하는 출생성비는 1995-2000년 사이에 110을 유지하였던 것에 비해 2000-2005년 사이는 약간 감소한 109.2를 보이고 있으나, 출산력 감소와 더불어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남아선호사상 역시 중요한 자녀 가치관 중에 하나로서 출산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인숙 2005). 따라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중에서 특별히 아들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는지, 그리고 아들의 필요성이 둘째 자녀출산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자녀양육책임감과 자녀출산과의 관계를 생각해볼 수 있다. 최근 자녀 교육의 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중요해짐으로써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증폭된다고 지적된다. 이러한 경향은 자녀양육비 등 자녀부양부담과 관련이 되어 설명될 수 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자녀교육을 중시하는 사회인데, 최근 한 명의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 막대해지면서 자연스럽고 많은 수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조사에 의하면(김승권 2004), 자녀양육비용은 월 평균 가구 소비 지출액의 56.6%를 차지할 정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며, 이러한 자녀 양육에 드는 막대한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은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자녀의 출산을 기피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강경숙 등 2005; 이인숙 2005). 따라서 자녀양육책임감을 더 막중하게 느끼는 경우, 현실적인 자녀양육비용을 감안

해 볼 때 적은 수의 자녀를 계획할 것이라 사료 된다.

셋째, 이상자녀수와 자녀출산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자녀수란 일반적으로 가족 내 몇 명의 자녀가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가족인가에 대한 가치관을 나타낸다. 선행연구에 의하면(김정석 2007), 이상자녀수를 2명 이상 생각하는 기혼여성들이 둘째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다. 이것은 이상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출산계획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자녀가치관범주에 조사대상자의 이상자녀수를 포함시켜 과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가 실제의 출산 계획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가족관계 요인과 자녀출산

국내·외를 막론하고 출산행동 연구에 있어서 가족 내 관계적 특성이 출산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최근 국내 연구들은 우리 사회에서 자녀출산이 현실적 요인, 즉 가족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는 이성적 판단 하에 이루어지면서 부부간의 의사소통 및 부부간 육아협력 등 부부관계가 출산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박정희·장영애 2003; 천혜정 2005).

최근의 몇몇 서구의 연구(Friedman et al. 1994; Myers 1997; McDonald 2000)들은 출산행동을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들이 지나치게 경제학적, 혹은 인구통계학적, 사회학적 설명에 치중하였지만, 어느 것도 완전하게 출산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출산행동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렌즈'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때 자녀출산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렌즈'로 제안되는 것이 바로 가족 내 관계의 다이내믹, 즉 부부관계 및 여성의 지위와 역할과 자녀출산의 관계이다(Nock 1988).

서구에서 가족 내 관계적 측면과 출산행동과의 관련성은 주로 부부관계의 질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들은 주로 두 가지 관점 즉, 심리학적 관점과 성평등적 관점에서 부부관계의 특성이 출산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심리학적 관점에서 부부관계와 출산력의 관계를 설명한 관점으로 Friedman 등(1994)이 제안한 '불확실성 감소 이론'(uncertainty reduction theory)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출산관련 이론들이 지나치게 사회경제적 측면, 즉 도구적 측면에 국한되었음을 비판하면서, 자녀를 출산하는 문제를 특히 부부관계에 한정하여, 과연 자녀가 얼마나 부부간의 결속감(solidarity)을 증진시키며, 결과적으로 부부간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지를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누구나 삶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하며, 결혼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요한 메카니즘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결속감이 낮은 부부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녀출산을 결정하는 경향이 크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Myers(1997)는 실증연구를 통해 배우자간의 결속감이 높고 일치감이 높을수록 오히려 자녀를 출산하려는 경향이 더 높음을 발견하면서 위의 Friedman이 제안한 가설들을 모두 지지하지 않았다. 이 연구들은 그동안 동기, 부부간 행복감, 권력 등 심리학적 요인들이 자녀출산을 설명하는 연구에 간과되어 왔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하나, 과연 이러한 심리학적 요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자녀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부부관계의 질적 측면과 자녀출산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연구의 흐름 중 두 번째 것으로 성평등적 관점을 들 수 있다(McDonald 1997; McDonald 2000; Torr & Short 2004). 성평등적 관점은 저출산 현상과 부부간 성평등 수준과의 관련성을 설명한 것으로서, 주로 부부간의 가사분담의 평등성을 측정도구로써 사용하였다. 이 연구들에 의하면, 성평등성이 자녀출산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은 조사대상자들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맥락, 개인의 성평등 가치관에 의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녀출산 행동에 있어서 부부간의 가사분담의 정도, 성평등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한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 부부관계의 만족도 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

에서의 여성이 느끼는 균형성이 자녀출산을 계획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접근 방법이 각기 다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가족관계의 질적 요인들이 자녀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자녀출산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조사대상자들이 가족 내에서 맺는 가족관계의 특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부부관계 차원의 만족도 변수와 가족 내 지위와 역할에 관한 주관적 만족도 변수를 사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선행연구들을 통해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 중 자녀출산과 관련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로써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현존자녀성별, 거주 지역 등이 논의되어 왔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연령은 출산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왔다. 여성의 연령은 생물학적으로 출산이 가능한 가임기간을 의미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여성이 출산하기에 적절한 출산연령이 존재해 왔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통해 (Bulatao 1981; Namboodiri 1974) 여성의 연령 및 결혼연령은 가족사izes를 결정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일관적으로 보고된다.

둘째, 여성의 교육수준의 영향을 들 수 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일수록 결혼 이후에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며(공선영 2006; Kravdal 2001; Nomaguchi 2006; U.N. 2003). 결혼 후 일정 기간 내 첫째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Nomaguchi 2006; Ogawa & Retherford 1993). 왜냐하면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은 집에서 가족들을 돌보는 일 이외에도 사회에서 좋은 여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출산을 미루거나 아이를 낳기를 꺼려한다는 것이다(Becker 1981; Nock 1988). 또한 교육은 여성들의 결혼과 가족

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서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결혼과 가족가치관에서 더욱 독립적이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보다 좀 더 개인적 여가활동과 사회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다(강경숙 등 2005; Nomaguchi 2006).

셋째, 여성의 취업 여부 역시 자녀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 여성의 취업 증가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알려졌다. 즉 여성의 고학력화 현상은 결국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사회진출을 위한 기회를 증가시켰으며, 이로 인해 여성들은 결혼과 자녀양육 이외에도 더 많은 삶의 선택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성 취업은 자녀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장진경 2005). 더욱이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의 부적 상관관계는 여성의 취업자체가 출산율을 직접적으로 낮추기보다 여성의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이 미흡한 상황으로 인해 더욱 증폭되는 듯하다(보건복지부 2006; 천혜정 2005; Torr & Short 2004).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대신 돌보아 줄 수 있는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공공 및 민간 보육시설이 부족할 뿐 아니라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일과 가정을 병행해야 하는 가족지원 서비스 및 복지환경이 열악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취업증가는 출산율의 감소를 이끄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박영창 2005; 손홍숙 2005).

넷째, 현존자녀 성별이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 미치는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서구의 연구들은 자녀의 성별 구성이 추가자녀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면서, 더욱이 특정 자녀 성별에 대한 선호가 강하게 존재하는 사회일수록 현존 자녀의 성별이 출산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고 한다(Pollard & Morgan 2002).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로 유교문화로 인한 남아선호사상이 강하게 남아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둘째 자녀출산이 상당히 제한되는 중국의 경우, 둘째 자녀를 출산이 허용되는 지역에서 둘째자녀를 낳는 부모는 남아출산의 열망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첫 자녀 성별이 아들이 아닐 경우 둘째 자녀를 계획하거나, 둘째자녀를 출산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Qian 1997). 따라서 본 연구는 합계 출산율이 두 명을 밑도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소자녀 선호에 현존 자녀의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섯째, 거주지역과 둘째자녀 출산계획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김정석2007; 이

인숙 2005)들은 거주지역이 도시지역인지, 농촌 지역인지의 여부가 추가자녀출산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음을 보고한 바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자녀출산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고된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현재 자녀 성별, 거주지역 등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Table 1. Selective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Characteristic	N(%)
Age	
20-24	50(4.3)
25-29	278(24.0)
30-34	356(30.8)
35-39	244(21.1)
40-44	228(19.7)
total	1,156(100)
Income	
under 990,000	393(34.0)
1,000,000-1,990,000	378(32.7)
2,000,000-2,990,000	196(17.0)
3,000,000or more	189(16.3)
total	1,156(100)
Education Status	
Primary school	23(2.0)
Middle school	91(7.9)
High school	558(48.4)
College & University	176(15.3)
Graduate school	306(26.5)
total	1,154(100)
Employment	
Yes	534(46.2)
No	622(53.8)
total	1,156(100)
Region	
Urban area	890(77.0)
Rural area	266(23.0)
total	1,156(100)
Boy at first birth	
Yes	661(57.2)
No	495(42.8)
total	1,156(100)
Plan of second births	
Yes	463(40.1)
No	693(59.9)
total	1156(100)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0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전국의 15-59세 성인남녀 11,11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질문지 내용은 응답자 가구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복지에 관한 사항,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이 조사에 응답한 조사대상자들 중 현재 자녀가 한 명인 20세에서 44세의 기혼여성 1,156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첫째, 분석대상을 20-44세 기혼 여성들에게 한정 한 것은 연령층이 높은 여성의 경우 향후 출산의 향이 실제 출산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을 뿐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며(김정석 2007), 둘째, 자녀가 1명인 기혼여성으로 한정 한 것은 일반적으로 이상자녀수가 2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자녀출산여부를 가장 고민하고 추가자녀 출산이 가족 내 매우 중요한 관심사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현재 1명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인 둘째자녀 출산계획이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자녀 출산계획의 여부는 2003년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조사표 문항 중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생각입니까?”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안 낳겠다’고 응답한 경우를 1로 코딩하고, ‘낳겠다’와 ‘생각중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다. 즉, 확실히 들

째 자녀 출산계획이 없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분명히 낳지 않겠다고 명확한 의사를 표시한 집단을 준거범주로 삼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자녀가치관 관련 변인과 부부관계 변인, 그리고 통제변수인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인 등 세 가지 측면이 포함되었다. 첫째, 자녀가치관 변인의 경우 '아들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자녀양육책임감', '이상자녀 수' 등 세 가지 변수를 포함한다. '아들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조사표 문항 중 "꼭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를 활용하였으며, '없어도 상관없다'를 1점, '꼭 있어야 한다'를 3점으로 코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아들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양육책임감'은 조사표 중 "부모로서 자녀양육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을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1'점, '언제까지라도 책임져야 한다'는 '5'점으로 하는 서열변수로써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상자녀 수'는 조사표 문항 중 "귀하께서는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을 2명 이상으로 한 경우 '1', 1명으로 응답한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활용된 가족관계 만족도 관련 변인은 '부부관계 만족도', '가족 내 지위와 역할에 대한 만족도', '가족원간 대화 및 친밀감에 대한 만족도' 등 세 가지 변수를 포함한다. '부부관계만족' 요인은 조사표 문항 중 배우자에 대한 이해도, 시간의 길이, 성생활, 가사의 양, 소비성향, 부부간 대화, 부부간 문화생활,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 등 전반적인 배우자 관계에 대한 응답자의 만족도가 어떠한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스럽다'를 1점으로 하고 '매우 만족스럽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만족 척도의 신뢰도는 $\text{Chrombach } \alpha = .95$ 이었다. '가족 내 지위와 역할' 요인은 조사표의 가정생활 만족도를 묻는 하위 문항 중 "가정에서 나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항목을 선택하였다. 이 항목에 대한 응답은 '매우 불만족스럽다'를 1점으로 하고 '매우 만족스럽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및 가족의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자녀가 아들인지의 여부, 가족의 총소득, 거주지역 등이 포함되었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이상'의 응답범위를 가지며 서열변수로써 로짓분석에 사용되었다. '아들여부' 요인은 현 자녀가 아들일 경우 1점, 그렇지 않으면 0점으로 코딩하였다. 가구소득은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99만원 이하를 1, 100만원에서 199만원 이하를 2, 200만원에서 299만원 이하를 3, 300만원 이상을 4로 하는 연속범주로 활용하였다. 거주지역 요인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인데, 대도시 및 중소도시 지역에 거주하면 '1', 읍·면지역이면 '0'으로 코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부부관계 및 자녀가치관의 전반적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을 구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의 부부관계 및 자녀가치관 요인이 둘째 자녀 출산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녀 출산 계획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다음의 네 단계로 이루어졌다. 우선 사회인구학적 변인들로부터 구성된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에, 자녀 가치관이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녀 가치관 요인(이상자녀수, 자녀양육책임의 한계, 아들의 필요성)만을 분석 모형에 포함시킨 후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찬가지로 가족관계만족도가 향후 자녀출산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 가족관계 요인(부부만족, 가족 내 지위 및 역할)만을 로짓모형에 투입하였다. 마지

막으로 자녀가치관 요인과 가족관계요인을 한꺼번에 투입하여 다른 요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각각의 요인들이 둘째자녀 계획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되는지, 혹은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IV. 연구결과

1. 자녀가치관 및 부부관계의 전반적 경향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갖는 자녀가치관과 부부관계의 전반적 경향이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첫째, 조사대상 기혼여성들의 자녀가치관의 전반적 실태를 아들의 필요성, 자녀책임감, 이상자녀수 등 세 가지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아들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응답 평균은 1.61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들의 필요성을 ‘없어도 상관없다’를 1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를 2점, ‘꼭 있어야 한다’를 3점으로 하여 측정하였을 때, 조사대상자의 응답 평균이 척도상 ‘없어도 상관없다’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의 사이에 위치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미 한 자녀를 두고 있는 응답자들이 인지하는 아들의 필요성은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한자녀 기혼여성들이 지각하는 이상자녀 수를 알아본 결과 이상자녀 수 평균이 2.10명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자녀 기혼여성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상적인 자녀수는 두 명 이상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사대상자들이 아직 한자녀 만을 두고 있고, 앞서 조사대상자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응답자 대다수인 59.9%가 둘째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대답한 점을 감안한다면, 개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와 현실적인 출산계획 사이에는 괴리감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들이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어느 정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Table 3과 같다. ‘부모로서 자녀양육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를 물어본 결과,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라고 응답한 경우가 40.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에 ‘자녀가 혼인을 할 때까지’로 전체 응답자의 26.2%를 차지하였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의 과반수이상(63.9%)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부모가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은 자녀가 성인인 후 어느 정도 사회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의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만족도의 전반적 경향을 부부관계 만족도와 가족 내 지위와 역할에 대한 만족도 등의 두 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두 가지 하위 영역의 측정은 ‘매우 불만족스럽다’를 1점, ‘매우 만족한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부부관계 만족도의 경우 응답자의 평균이 3.04,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3.36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족 관계만족도 요인의 평균값은 척도상 ‘보통이다’와 ‘만족스럽다’의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대상 기혼여성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결혼 생활과 가족 내 지위에 대해 보통 이상의 만족정

Table 2. Mean ratings of the value-related factors and satisfaction of family relationships

Area	Variable Name	Mean(range)	S.D.
Value-related factors	desire for son	1.61(1-3)	0.68
	ideal number of children	2.10	1.21
Family relationships	marital satisfaction	3.04(1-5)	1.00
	satisfaction of status and roles in family	3.36(1-5)	0.76

Table 3. Degree of the parental responsibility

Parental responsibility	N(%)
Until child's graduation of high school	121(10.9)
Until child's graduation of university	469(42.1)
Until child's getting a job	120(10.8)
Until child's marriage	303(27.2)
Forever	102(9.1)
Total	1,115(100)

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2. 둘째 자녀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자녀 여성의 추가 출산계획 여부를 종속 변수로 하는 로짓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Table 4.에서 보듯이,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유발할 만큼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로짓 분석을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한자녀 여성이 둘째 자녀 출산 계획을 세우는가 여부에 과연 자녀가치관 요인과 가족관계 만족도가 영향력 있는 요인인지, 그리고 이 중 어떤 요인들이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네 단계의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변수들만을 투입한 로짓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다음에 자녀가치관 요인과 부부관계 요인을 각각 차례로 인구학적 모델에 추가하는 로짓 모델과,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요인과 인구학적 변수들을 모두 로짓 분석에 포함한 분석 모델을 각각 구성하였다. 즉, 먼저 인구학적 특성만을 로짓분석 한 후(model 1), 다음에 인구학적 변수와 자녀가치관 요인을(mode 2) 분석에 포함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인구학적 변수와 부부관계의 요인(model 3)을 각각 로짓 모형에 투입하였다. 마지막에 인구학적 변수와 이 두 요인을 모두 포함한 모델(model 4)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모델마다 어떠한 요인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며,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로짓분석 단계 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 과연 자녀가치관 요인과 가족관계 요인 중 어떤 요인이 더 통계적 영향력을 갖는지 살펴보기로 하였다. 로짓 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첫째,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변수들로만 구성하여 로짓 분석을 실시한 결과, 월소득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추가자녀계획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상했던 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취업을 한 경우, 현재 자녀가 아들인 경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추가자녀계획이 없다고 응답할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결과들과 일치한다 하겠다.

둘째, 기혼여성의 인구학적 특성에 자녀가치관 요인, 즉 이상자녀 수, 자녀양육책임감, 아들의 필요성의 세 가지 변수를 추가하여 투입한 결과(model 2), 자녀양육책임감과 이상자녀수가 추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	1.00	-.190***	.195***	.043	-.097**	.063*	-.055	-.035	-.009	-.193***	-.054
2	-.187***	1.00	.006	.370***	-.006	.174***	.023	-.017	-.004	.228***	.139***
3	.196***	.006	1.00	.254***	.051	-.058*	-.020	-.004	.021	-.205***	-.022
4	.046	.370***	.254***	1.00	.016	.113***	-.006	-.014	.041	.189***	.120***
5	-.099**	-.006	.051	.016	1.00	.029	.023	.117***	-.043	-.009	.029
6	.061*	.174***	-.058*	.113***	.029	1.00	-.004	-.082**	-.067*	.030	.014
7	-.054	.023	-.020	-.006	.023	-.004	1.00	.188***	-.022	.024	-.006
8	-.038	-.017	-.004	-.014	.117***	-.082**	.188***	1.00	.081**	-.027	-.044
9	-.009	-.004	.021	.041	-.043	-.067*	-.022	.081**	1.00	.017	-.021
10	-.194***	.228***	-.205***	.189***	-.009	.030	.024	-.027	.017	1.00	.372***
11	-.053	.139***	-.022	.120***	.029	.014	-.006	-.044	-.021	.372***	1.00

1. age 2.education 3.employment 4.income 5.boys at first birth 6.residence 7.ideal number of children 8. desire for son 9.parental responsibility 10.marital satisfaction 11.satisfaction of status and roles in family

*p<.05 **p<.01 ***p<.001

가자녀계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즉, 자녀양육 책임감을 더 많이 느끼는 응답자일수록 추가 자녀계획이 없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한자녀를 둔 여성이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 현재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이 추가 자녀 출산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하여 두 번째 자녀의 출산을 꺼리는 경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선행연구(김정석 2007)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 역시 한자녀 여성이 추가 자녀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이상자녀수를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는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서, 이상자녀수가 2명 이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역시 둘째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더 큰 반면, 이상자녀수를 2명 미만으로 고려하는 응답자는 추가자녀 계획이 없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이 자녀가치관 요인이 추가됨에 따라 추가자녀계획에 미치는 통계적 효과가 영향을 받는지 살펴본 결과, 자녀가치관 요인을 모델에 추가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영향력이 독립적으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아들여부, 거주지역 등의 대부분의 개인 특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자녀가치관 요인 중 자녀양육책임감과 이상자녀수가 둘째자녀출산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녀가치관 요인은 인구학적 요인의 효과에 어떤 매개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인구학적 요인과 자녀가치관 요인은 각각 독립적 효과를 유지하면서 둘째자녀 출산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인구학적 변수들과 함께 가족관계 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인 부부만족도와 가족 내 지위 및 역할 만족도 변수를 투입한 결과(model 3), 이중 부부만족도만이 추가자녀 계획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관계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들이 둘째자녀를 낳겠다고 응답할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서구의 선행연구들(Friedman 등 1994; Myers 1997)은 부부관계의 질이 과연 자녀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일관적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향이다. ‘불확실 감소 이론’(Friedman 등 1994)에 의하면, 자녀출산행동 혹은 자녀 출산 의도는 부부간의 심리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는데, 부부간의 친밀감이 높다는 것은 부부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녀출산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반면, 후속적으로 이루어진 Myers (1997)의 실증연구에 의하면, 이 이론의 효과가 반드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배우자간의 친밀감과 결속감이 높을수록 자녀를 출산하려는 경향이 더 높음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부부간의 만족도와 자녀출산 의도가 정적 관계를 보였다는 점에서 후자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 밖에 가족관계 요인과 함께 분석에 포함된 개인의 인구학적 요인 중 추가 자녀 출산계획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취업여부, 아들여부, 거주지역 등으로 나타났다. model 1에서처럼 인구학적 변수만을 투입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가족관계 만족도 요인이 추가될 경우 응답자의 교육수준의 효과가 사라짐을 알 수 있다. 즉, 부부 만족도 변수는 교육수준의 효과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사료된다.

넷째, 자녀 가치관 요인과 가족관계 만족도 요인, 통제변수들을 모두 분석 모델에 투입한 결과(model 4), 각 요인을 각각 모델에 투입했던 model 2와 model 3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자녀가치관 요인과 가족관계 만족도 요인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지속됨을 알 수 있다. 즉, 앞서와 마찬가지로 자녀 가치관 요인 중 이상자녀수와 자녀양육 책임감 요인이 여전히 추가자녀출산 계획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부부만족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전 모델(model 2)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갖지 않았던 아들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가족관

Table 5. Factors affecting the plan of a second birth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S.E.	Exp (B)	B	S.E.	Exp (B)	B	S.E.	Exp (B)	B	S.E.	Exp (B)
Demographic variables												
Age	1.558***	.119	4.749	1.673***	.129	5.328	1.544***	.121	4.683	1.649***	.130	5.201
Education	-.168*	.075	.845	-.170*	.080	.843	-.118	.077	.889	-.120	.081	.887
Employment	.397**	.146	1.487	.380*	.156	1.462	.298*	.152	1.348	.253	.161	1.288
Income	-.066	.073	.936	-.094	.078	.910	-.040	.075	.961	-.036	.081	.965
Boy at first birth	.282*	.137	1.326	.384**	.147	1.468	.291*	.139	1.338	.409**	.149	1.506
Region	.428*	.166	1.534	.374*	.179	1.454	.444**	.169	1.558	.345	.181	1.412
Value-related factors												
Desire for son				-.205	.110	.815				-.243*	.112	.785
Parental responsibility				.144*	.061	1.155				.149*	.061	1.161
Ideal number of children				-.756***	.124	.470				-.770***	.125	.463
Family relationships												
Marital satisfaction							-.277**	.094	.758	-.302**	.101	.739
Satisfaction of status and Roles							-.083	.100	.920	-.135	.106	.874
Chi-Square(df)	282.991***(6)			338.440***(9)			297.914***(8)			354.614***(11)		

*p<.05 **p<.01 ***p<.001

계 만족도 요인이 추가되었을 때(model 4) 추가 자녀출산 계획에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 가치관 요인 중 아들의 필요성 변수의 효과는 가족관계 만족도 요인, 특히 부부만족변수를 함께 고려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odel 4의 인구학적 특성의 효과는 인구학적 특성 변수만을 포함시킨 model 1과, 자녀가치관 요인을 추가한 model 2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구학적 요인들만 독립적으로 포함된 경우, 혹은 자녀가치관요인이 추가될 경우에 비해, 가족관계 요인과 자녀가치관 요인이 분석에 모두 포함될 경우, 대부분의 인구학적 요인들의 통계적 유의성이 상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구학적 요인 중 연령과 아들여부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남은 채, 다른 요인들의 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짐을 알 수 있다.

결국, 본 연구 결과 한자녀 기혼 여성이 둘째 자녀 출산을 고려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어떠한가와 부부관계에 얼마나 만족 하는가 등 자녀가치관과 부부관계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관계 요인의 추가가 다른 요인들의 통계적 효과를 매개하였는데, 이것은 부부만족도 변수가 상대적으로 둘째 자녀출산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V. 맺는말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결혼 및 가족의 내적·외적 변화를 견지하고, 특히 이 중 가족의 내적 환경인 자녀가치관과 가족관계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가족 관련요인들이 출산행동의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자녀가치관과 가족관계 만족도가 어떠한지 살펴보고았다. 우선 자녀가치관 중, 아들의 필요성의 경우 응답자들은 아들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책임감의 경우, 응답자들

은 보통 자녀가 대학졸업 후 취업 때까지, 즉 성인으로서 사회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책임감을 다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는 평균 2.17명으로 나타났는데,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한 자녀만을 두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현재 자녀수와 이상자녀수 간에 괴리감이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전히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이상자녀수는 두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의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가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가족관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가치관 관련 변수들이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자녀가치관 변수들은 둘째자녀출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가치관 요인의 경우 자녀양육책임감과 이상자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밝혀졌다. 즉, 자녀양육부담을 많이 느낄수록 추가자녀계획이 없다고 응답할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이상자녀수를 2명 이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둘째자녀를 계획할 가능성이 높았다. 아들의 필요성 변수의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 요인이 추가될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들의 필요성이 추가자녀계획에 미치는 효과는 가족관계 만족도 변수에 의해 매개됨을 알 수 있다.

셋째, 가족관계 만족도 관련 변수들이 추가자녀계획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부부만족도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즉, 부부 만족도가 높을수록 추가자녀를 희망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넷째, 가족관계 만족도 요인, 특히 부부만족도 변수는 인구학적 요인과 자녀가치관요인의 효과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요인의 경우, 독립적으로 분석에 포함되거나 자녀가치관 요인과 함께 분석에 포함될 경우, 대부분의 변수들이 추가자녀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관계요인을 추가한 이후에는, 연령

과 현재 아들 여부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자녀가치관 요인도 역시 가족관계요인들을 추가한 이후에는 이전에 유의한 효과를 갖지 않았던 아들의 필요성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족관련 요인 중 부부 만족도 요인은 인구학적 요인과 자녀가치관 요인의 효과에 비해 추가자녀계획여부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본 연구결과가 갖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아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별로 높은 편이 아니었으며, 이것은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현재 자녀가 아들인지의 여부와 조사대상자의 아들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이 강할수록 둘째 자녀 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아들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약화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자녀출산에 있어서 남아선호사상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암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적은 수의 자녀를 낳는 상황에서 아들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즉 자녀의 성별이 추가자녀출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둘째자녀를 출산하는데 있어서 아들의 존재여부와 아들에 대한 가치관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소자녀화 현상에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저출산과 자녀양육 부담감의 관계를 논하는데 있어서 선행연구들은 주로 자녀양육비용의 측면에서 과중한 부담을 언급해 왔다. 본 연구결과는 심리적으로 느끼는 자녀양육의 부담감, 즉 부모로서 자녀에게 느끼는 책임감 역시 자녀수를 제한하는 역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자녀양육의 질적 측면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와 동시에 사회적 차원에서, 자녀출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의 물적, 심적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부모가 느끼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사회의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 이상자녀수는 추가 자녀 출산을 긍정적으로 계획하는데 영향을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실제 자녀수는 한 명임에 비해 평균 이상자녀수는 두 명 이상이었다는 결과와 연결시켜 본다면, 어떤 여건이 마련된다면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자녀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것은 이상자녀수에 도달하지 못하는 다양한 외적 환경과 압력이 강하게 존재함을 암시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의 흥미로운 부분은 부부만족도 변수가 추가자녀 계획에 미치는 통계적 효과였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부부만족도는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뿐 아니라 자녀가치관 요인을 매개하는 변수로서 추가자녀 출산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직계혈연 중심의 가족가치관이 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자녀출산과 관련하여 인해, 몇 명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이 비교적 강하게 존재하였다. 그러나 부부만족도가 자녀출산을 희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는 자녀출산 결정, 혹은 자녀출산행동이 더 이상 사회의 규범에 따라 일률적 패턴으로 나타나지 않고 배우자 단위에서 부부간의 관계의 질에 따라 가족 개별적 패턴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결국, 자녀출산 결정에 부부관계의 속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족이 직계가족중심에서 부부중심화 되고 있음을 구체적 자료를 통해 검증한 것이라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자녀출산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인구학적, 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의 가치관과 부부관계 양상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자료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또한 둘째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데 가족 내 어떤 영향요인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출산력 변화의 방향성을 예상하고 더 나아가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강경숙·범미희·정은미(2005)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저출산 요인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0(3), 127-145.
- 강복화(2003) 저출산에 따른 보육정책의 발전방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공선영(2006) 경제위기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에 미친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19, 119-149.
- 김수연(2004)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인구복지정책.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권(2004)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정례(2005) 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석(2007) 기혼여성의 출산아수별 추가출산계획. 한국인구학 30(2), 97-116.
- 김정이(2004) 출산율저하의 원인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연규(2005) 복지국가의 아동양육지원제도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에 대한 비교연구. 사회보장연구 21(3), 233-261.
- 박정희·장영애(2003)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 31-44.
- 박영창(2005) 저출산 관련 정책평가 및 입법과제. 한국법제연구원.
- 변준환(2003) 기혼유배우 여성의 자녀수 결정요인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07) 2007년 1월 31일 보도자료.
- 손승영(2005) 한국사회 저출산 원인과 가족친화적 정책대안. 가족과 문화 17(2), 285-316.
- 손홍숙(2005) 저출산과 가족지원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1), 43-63.
- 원정원(2004) 여성 저출산의 실태 및 원인분석.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 은기수(2001) 결혼연령 및 결혼코호트와 첫 출산간격의 관계: 최근의 낮은 출산력 수준에 미치는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5(6), 105-139.
- 이윤희(2003) 사회적 제요인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삼식(2006) 저출산 원인과 구조와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111, 5-17.
- 이인숙(2005) 저출산의 요인분석과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7(4), 67-90.
- 장진경(2005)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출산 및 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3(11), 165-183.
- 장혜경(2004)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 정상훈(2005) 저출산에 따른 여성복지정책의 개선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연숙(2006) 저출산에 따른 국가의 대응정책에 관

- 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 조아라(2005) 저출산 대책 마련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구목(2005) 가족복지정책과 출산율. *한국사회복지학* 57(3), 337-361.
- 천혜정(2005) 둘째 자녀 출산 희망에 대한 배우자간 차이와 이에 따른 집단간 특성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25-33.
- 최현수(2005) 저출산 시대의 여성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6)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http://kosis.nso.go.kr>.
- Becker GS(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jörklund A(2006) Does family policy affect fertility?: lessons from Swede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y* 19, 3-24.
- Bulatao RA(1981) Values and disvalues of children in successive childbearing decisions. *Demography* 18(1), 1-25.
- Choi SH(2005) Korea: coping with low fertility rate. *Korea Economic Trends* 19, 13-20.
- Friedman D, Hechter M, Kanazawa S(1994) A theory of the Value of children. *Demography* 31(3), 375-401.
- Hakim G(2003) A new approach to explaining fertility patterns: preference theor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9(3), 349-374.
- Hoffman LW(1975) The value of children to parents and the decrease in the family size.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19(6), 430-438.
- Kravdal O(2001) Main and interaction effects of women's education and status on fertility: the case of Tanzania.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17, 107-136.
- McDonald P(1997) Gender equity, social institutions and the future of fertility. *Women and families: evolution of the status women as factor and consequences of changes in family dynamics*, Maria Eugenia(ed). Paris: Cicred, 13-33.
- McDonald P(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427-439.
- Myers SM(1997) Marital uncertainty and childbearing. *Social forces* 75(4), 1271-89.
- Namboodiri NK(1974) Which couple at given parities expect to have additional births? an exercise in discriminant analysis. *Demography* 11(1), 45-56.
- Nock SL(1987) The symbolic meaning of childbearing. *Journal of family issues* 8(4), 373-393.
- Nomaguchi KM(2006) Times of one's own: employment, leisure, and delayed transition to motherhood in Japan. *Journal of Family Issues* 27(12), 1668-1700.
- Ogawa N, Retherford RD(1993) The resumption of fertility decline in Japan: 1973-1992.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 703-741.
- Pollard MS, Morgan P(2002) Emerging parental gender indifference? sex composition of children and the third bir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4), 600-613.
- Qian Z(1997) Progression to second birth in China: a study of four rural countries. *Population Studies* 51, 221-228.
- Torr BM, Short SE(2004) Second birth and the second shift: a research note on gender equity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1), 109-130.
- United Nations(2003) Partnership and reproductive behavior in low-fertility countries. <http://www.un.org/esa/population/publications/reprobehavior/partrepro.pdf>.